

긍정의 관점에서 본 지역 오케스트라 음악 활동 Musical Activities of Local Orchestras from a Positive Point of View

이현수*

Hyunsu Lee

초록 본 연구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술 활동에서 삶의 가치를 긍정하는 장면을 찾기 위한 시도로 계획되었다.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으로 확보한 자료를 모두 텍스트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긍정이론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어 긍정의 요소들로 재배열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지역 오케스트라 활동은 공동체 음악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킨다. 둘째, 구성원 개인은 공동체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한다. 셋째, 오케스트라의 개인은 각기 다른 다양체를 구성하고 음악활동을 통해 탈영토화한다. 넷째, 구성원들은 끈기 있게 연습하고, 음악적 방법으로 협동하며,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연결접속한다. 오케스트라 교육은 각기 다른 긍정의 순간을 체험하고 나눌 수 있다.

주제어: 지역 오케스트라, 긍정, 강점 개발, 웰빙, 탈영토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happiness through positive value of life in local art activities.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and all data obtained were textualized and coded. Through coding analysis, similarities with positive theory were found, so text coding was rearranged into positive findings were as following.

First, local orchestra activities formed and developed community music culture. Second, individual members have formed a place where they can interact with people of various class in the community. Third, each individual in the orchestra constitutes a different multiplicity and deterritorializes through musical activities. Fourth, members practice patiently, cooperate musically, and connect in the form of talking about each other's feelings. Through orchestra experience, members can experience and share various positive moments. Local orchestra activities allow local residents to learn Use 'form of positive life' through music activities. Each musical activity values life as it is connected to one's own life.

Key words: local orchestra, positivity, strength development, well-being, deterritorializa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Hyunsu2507@naver.com

Adjunct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Korea

Received: 31 May 2023, Reviewed (Revised): 3 July (15 July) 2023, Accepted: 20 July 2023

© 2023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우리는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가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2021년 이루어진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 한국인의 행복감은 6.56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22).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을 겪는 환자는 매년 7.8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다(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22).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의 국가 간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 행복을 훨씬 덜 느끼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Lee, 2018).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인식은 해마다 증가한다. 이런 사실들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떨까?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웰빙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 학생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만점에 6.36점으로 OECD가 제시하는 평균인 7.31점에 미치지 못한다(Chu, 2019). 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PISA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최상위이지만 학업의 만족도는 최하위를 기록하였다(PISA, 2019).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까? 그것은 학습자의 학습이 자기만족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삶에 음악은 대안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음악을 비롯한 예술교과는 학생이 생활 속에서 음악적 삶을 실천하며 음악을 통해 소통하며 공동체적 문화를 이루어 가는 삶을 사는 것에 있다(Lee, 2023a; Ministry of Education, 2022). 학습자가 음악함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가치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음악교과의 중요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들은 현재 음악을 통한 교육도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는 측면을 보여준다.

인간은 제한된 환경에서 힘겹게 자기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쓰는 존재이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사는 동안 진정으로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Seligman, 2011).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평생 동안 자기의 만족인 행복을 찾는 삶을 추구한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사회의 구조는 인간을 억압하는 형식으로 견고하게 작동하며 행복한 삶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실천을 다양한 방식으로 억누른다. 때문에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이를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이러한 여정에 직접 소리와 선율을 만들면서 정서를 함양하는 음악활동은 인간의 행복 추구의 가능성을 준다. 어떤 사람은 여가 활동으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여기며 음악활동을 한다. 대중이 참여하는 음악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 오케스트라 활동은 타인과 소통을 전제로 하며 생활세계에서 협동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공동체적 표현활동이라 할 수 있다(Kang & Chie, 2016).

20여 년 동안 ‘긍정’을 연구해온 마틴 셀리그만(M. Seligman)은 인간이 가진 잠재적인 정서를 발견하여 자극시키고 능력을 개발하여 긍정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자기의 능력을 키우며 사회에서 발현할 때 자기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낙관성 학습(positive learning)과 강점 개발(strengths), 그리고 플로리시(flourish)의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는 긍정이론은 학생 개인의 특성과 잠재력 능력의 발현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Seligman, 2005; 2010; 2011).

‘긍정’의 관점을 음악활동으로 가져와보면 매우 다양하고 의미 있는 내용들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음악교육에서 ‘긍정’이라는 용어는 소개된 바가 거의 없고 지역에서 음악활동으로 삶에서 긍정에 이르는 과정을 탐구하는 연구 또한 찾아보기 쉽지 않다.

교실 안팎을 비롯하여 우리 삶의 주변에는 음악을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 있는 장면이 있다. 이러한 장면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며 잘 포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 긍정하는 장면들을 찾아 교육적인 측면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긍정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으며, 긍정의 관점에서 지역의 오케스트라 활동은 학생과 주민들에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긍정이론의 배경

긍정(肯定)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행위이다. 한 인간이 가치판단을 내리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삶을 견지하는 태도와 관련된다.

긍정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는 긍정심리학에서 비롯되었다. 최근까지 심리학은 질병이나 병의 원인과 같은 병리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런 경향을 부정심리학(negative psychology)이라고 한다(Seligman, 2010; Seligman, 2011). 부정심리학은 개인의 사소한 증상조차 병으로 문제화시켜 인간 삶을 또 다른 문제로 변화시켰다. 셀리그만을 비롯하여 이러한 양상을 문제로 지적하는 학자들은 부정을 일상으로 보는 양태에서 인간이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정심리학에 반해 새롭게 등장하게 된 개념이 바로 긍정이다. 긍정은 인간의 삶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 하며 낙천적이 되길 희망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긍정을 모태로 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이 중 오스트리아는 긍정을 교육으로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2011년에 오스트리아 내에서 9개의 학교로 시작했던 긍정교육 학교 연합(PESA: Positive Education Schools Association)은 현재 100

개 이상이 동참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 중 지롱 그램머 스쿨(Gellong Grammar School)과 세인트 피터스 칼리지(St. Peters College)는 긍정교육을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다(Chu, 2019). 긍정교육의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가 긍정교육을 생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학생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법을 추구하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인 플로리시(fLOURISH)를 학교교육 목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긍정교육은 순간적인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를 이끌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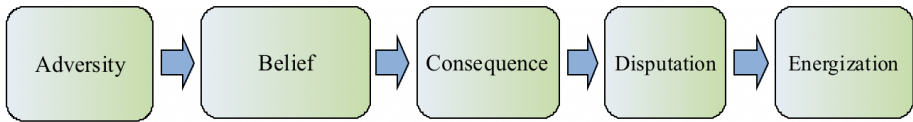
사회의 이익집단이 긍정을 학습하면 중요한 자원이 된다. 여기서 긍정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과 관계된다. 구성원들 간에 일어난 사건, 의사 결정에서 긍정이 작용하면 팀워크가 돈독해져 작업을 우수하게 달성하게 된다. 긍정을 타인과 공유하면 좌절이나 난관 속에서도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역경, 고난에 직면했을 때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원력을 형성한다.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긍정은 상황을 리드할 수 있게 하고 질책보다는 구성원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믿음을 준다. 이러한 힘은 경제적인 자본보다 더 높은 자본력을 가지는데 이를 ‘심리적 자본’이라 한다(Chung, Park, & Seo, 2011).

2. 긍정교육의 구성 원리

1) 낙관성 학습(Optimism learning)

낙관성은 인간이 사람, 사물, 사태를 밝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성격을 말한다. 학습의 방향과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학습에서 낙관적 사고의 전제는 학습자가 낙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Seligman, 2010).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 나쁜 일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는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 낙관성을 많이 지닌 사람들은 실제 일어난 일보다 좋은 일을 많이 기억하고 나쁜 일을 잘 잊어버린다. 낙관성 학습이 목표로 하는 것은 비관적으로 형성된 생각이나 관념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비관적 사고를 찾아 해체할 필요가 있다. 제일 먼저 하나의 비관적 사건에서 형성된 비관적 믿음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밝히기 위한 근거를 찾는다. 그 다음 근거 속에 있는 비관에서 왜곡과 대안을 찾는다.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왜곡된 믿음 안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다(Seligman, 2011).

낙관성 학습의 방법은 좋은 언어 습관을 갖도록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다. 비관적 환경에서도 “별일 아니야”, “괜찮을 거야”의 희망적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희망적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은 내면에 낙관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Seligman, 2010; Woo, 2012).



[Figure 1] Cultivation of optimism(Seligman, 2011)

2) 강점 개발(Strengths development)

강점 개발은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인간이 강점을 개발하여 다른 상황이나 다른 도구들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인 대표 강점을 발견하고 키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정한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학습자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점을 구성하는 요소는 기술과 지식, 재능으로 나눌 수 있다. 기술은 과제를 수행하는 기초 능력으로 일정기간 훈련이 필요하다. 지식은 축적한 실재와 이론적 경험으로 존재하는 규칙이나 사실을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와 관계한다. 재능은 타고난 고유 능력으로 기술과 지식으로 습득할 수 없는 영역이다. 기술·지식으로 터득한 강점은 훈련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미덕을 가진다. 그러나 재능은 미덕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개념 또한 없다. 재능과 나머지 영역을 결합하면 대표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Chu, Choe, & Lee, 2020). 개인이 소유한 강점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이든 하나 또는 몇 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유한 재능을 발견하고 훈련할 때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다.

성격 연구에 탁월한 학자인 피터슨(Peterson)은 셀리그만과 함께 행동가치연구소(Behavioral Values Institute)에서 세계의 주요 종교 및 철학에 관한 저술들을 읽고 강점을 발휘하는 공통적인 요소를 크게 정의감, 영성과 초월성, 지혜와 지식, 용기, 인간애와 사랑애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Seligman, 2011 재인용). 아래는 24개의 대표 강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Table 1> The components of representative strengths

Components	Contents
Integrity	• Kindness and discretion • Soci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skills, emotional intelligence • Teamwork (civic-mindedness), sense of duty, cooperation, loyalty • Fairness, equality • Leadership • Forgiveness, compassion • Humility and modesty

<Table 1> Continued

Components	Contents
Spirituality and transcendence	• Prudence, thoughtfulness, caution • Self-control • Appreciation • Gratitude • Hope, optimism, future orientation • Humor, sense, cheerfulness • Spirituality, sense of purpose, belief, faith
Wisdom and knowledge	• Curiosity, interest in the world • Eagerness to learn • Judgment, critical thinking, openness • Creativity, originality, practical intelligence, worldly perspective • Foresight, insight, wisdom
Courage	• Courage, passion, determination • Perseverance, diligence, industry • Honesty, integrity, truthfulness
Humanity and love	• Passion, zeal, enthusiasm • Love, the ability to love and the ability to know how to be loved

3) 웰빙(Well-bing)

한 때 열풍을 일으켰던 웰빙은 정신과 육체를 아우르는 건강한 삶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웰빙은 자기에서 시작해 타인과 관계로 확장하여 환경과 사회까지 기능한다 (Chu, Choe, & Lee, 2020).

셀리그만은 웰빙 이론 정립 초기에 긍정 정서와 몰입, 관계를 개념을 도입했다. 그런데 이 요소들만으로는 웰빙을 명료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는 학자들과 첨예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긍정 정서(positive emotion)’, ‘몰입(engagement)’, ‘관계(relationship)’, ‘의미(meaning)’, ‘성취(accomplishment)’의 다섯 가지 요소로 재정립하기에 이르렀다(Seligman, 2011).

긍정 정서는 기쁨이나 희열, 자신감과 같은 즐거운 인생의 구성요소이다. 몰입은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 시·공간에 대한 인식조차 잊고 절정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Csikszentmihalyi, 1999; Shin, 2023). 관계는 타인과 사회와 공존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의미는 자신이 삶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로운 것이다. 성취는 개인이 설정한 목표에 다가갈 때 느끼는 감정이다. 타인과 경쟁만을 의미하지 않고 자신과 하는 싸움이며 한계를 뛰어넘으며 얻는 감정이다. 과거에 얻은 성취는 현재의 경험으로 나타나고 미래에는 자신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래는 웰빙의 다섯 가지를 요소를 내용 현상으로 나눈 것이다.

<Table 2> Elements and effects of well-being(Seligman, 2011)

Elements	Content and phenomenon	Function and effect	
Positive emotion	• Enjoyable life • Career/Life overall • Joy, peace, gratitude, self-confidence, hope, optimism	• Intellectual,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expansion • Demonstrate in crisis and opportunity	• Creating an atmosphere to delight myself and others • Dedication and gratitude towards colleagues • A heart willing to forgive wrongs
Engagement	• Not being aware while immersed in a specific activity • Hobby activities, occupation (becoming one with music) • State of flow(無我陶醉)	• Formation of psychological assets when engaging in an activity • A mental state leading to psychological growth	• The anticipation that although it might not be enjoyable in the moment, It will bring greater rewards in the future
Relationship	• Build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 Life of companionship, community engagement, social activities	• Sharing emotions with others • Sharing happiness through communication	• Engaging in social activities to form broad human connections
Meaning	• Meaningful life • Belonging and contributing to something believed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self	• Hope, providing purpose to life	• Direction of dedication, orientation
Accomplishment	• Actively striving towards goals to generate positive outcomes)	• Struggle with oneself • Overcoming limitations	• Sense of achievement, confidence, contentment, pleasure • Abundant life • Combining personal experience and abilities to achieve peak performance

III.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방법 중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사용하여 기술하였다. 참여관찰-심층면담-자료수집-분석이 순환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사진자료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다. 부가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사진, 홍보책자, 공연 팸플렛이다. 자료가 가장 많이 수집된 공간은 행복마을학교 내 연습실과 격실이며 공연을 할 때는 따로 마련된 도서관 홀, 공연장에서 사진을 찍고 날짜별로 자료를 보관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지역예술단체인 행복마을 오케스트라의 단원들과 강사, 지휘자이다. 행복마을 오케스트라는 경남 창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에 교육청 지원으로 창단되었다. 행복마을 학교는 방송, 목공, 제빵, 공예 등 아홉 개의 마을 학교로 시작했으며,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오케스트라 형태의 마을학교는 이 지역이 유일하다.



[Figure 2] Practicing happy village school orchestra

행복마을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단원들은 지역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과 학부모, 성인들이다. 이 단체는 일주일에 두 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함께 음악활동을 한다. 화요일에는 악기 기초연습을 하고 금요일에는 전체 합주를 한다.

행복마을 오케스트라는 악기 경력이나 음악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단원의 대부분은 악기에 대한 기초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이다. 학생 단원과 성인의 단원 구성 비율이 비슷하다.¹⁾ 또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 주변의 폐교를 사용하여 개관하였기 때문에 접근이 쉽다.

행복마을 오케스트라는 2022년 7월에 작은 음악회를, 그 해 12월에는 1회 정기연주회를 하였다. 공연 후 학생과 주민들은 자신들이 삶의 반경에서 음악예술로 공연을 해냈다는 사실에 기쁨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1) 2022년 기준으로 전체 47명의 단원 중 18명이 성인이고 21명이 학생이다.

<Table 3> Instrumentation and personnel of the orchestra of happy village

Instrumentation/ personne	Personnel composition	Student	Adult	Instructor	Music director and conductor/leader/centre manage
Violin	9	5	4	1	3
Flute	6	5	1	1	
Saxophone	8	1	7	1	
Trumpet	7	7	0	1	
Trombone	4	3	1		
Percussion	5	0	5	1	
Total	39	21	18	5	3
	47 ²⁾				



[Figure 3] Performance of happy village school orchestra and poster

2.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은 5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하였다. 2~3주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하였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방식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있는 그대로 관찰하였다. 심층 면담은 집단 면담과 개인 면담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개인 면담은 5월 28일, 6월 24일, 7월 5일, 14일, 20일에, 집단 면담은 9월 6일, 10월 2일에 같은 파트군을 상대로 진행하였다.

2) 인원은 2022년 7월까지 종합한 수치이다.

3. 코딩

자료수집으로 확보한 녹음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관찰기록지와 면담기록지로 텍스트화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각각의 텍스트에 의미 부호를 주며 코딩하였다. 코딩은 6차까지 진행했다. 코딩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수기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처음 수행할 당시에는 긍정의 요소에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6차까지 코딩에 긍정의 요소는 1차 ‘즐거움’, 2차 ‘자신감’ 4차 ‘몰입’과 같이 산발적으로 내재해 있었다.

coding 1			coding 2		coding 3		coding 4		
start instrument	goal	atmosphere	curiosity	spontaneity	ensemble	practice	music life	speciality	age
parents suggestion	cooperative	enjoyment	difficulty	level	self tempo	fingering	around house		elementary
structure	organization		give up		magnetic beat	tone	distance	stage	youth
friend		leisure life	suggestion	challenge	control			communication	adult
family	work		help		dynamics	capacity	same music		older
yearning					cooperation				

coding 5		coding 6		
community		performance	achievement	value
responsibility	love	harmonious	confidence	meaning
brave	kindness	musical dialogue	proud	self-examination
patience/time		modesty		
consideration	cooperation	wish	humorous	satisfaction
				cure

[Figure 4] Strengths and well-being keyword in coding analysis

6차까지의 코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긍정이론의 강점, 웰빙, 플로리시의 의미단위들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이 중 강점과 웰빙을 축으로 두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텍스트의 순으로 재배열하였다. 분류는 <Table 2>에서 나열한 24가지 대표 강점 요소들 중에 텍스트에 유사한 의미가 들어 있으면 해당 요소로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셸리그만(2011)과 우문식(2012)의 강점 요소와 내용 설명을 참고하였다. 아래는 코딩분석에서 사용된 내용, 텍스트 개수, 핵심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4.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삼각검증(triangulation)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의 관점, 척도, 기법, 시간, 공간, 상황을 활용하거나 고려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Jo, 2016). 참여관찰 및 면담 기법을 활용하여 심층기술을 시도한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인 지휘자와 음악감독의 확인(checking) 해당 분야와 관련 있는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교환 2회, 동료 연구자 2인의 검토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Table 4> The number and resources of related to positive elements

Content related to strengths		Representative transcript	Number of relevant texts
Sense of justice	Curiosity: Interes	I always had the thought of trying to learn the saxophone, and I happened to get the chance to do it	25
	Courage: Determination to overcome	(Conductor/teacher) Well done. You're giving courage like this	13
	Perseverance: Not giving up	It feels like I'm gradually improving even with just two hours of practice.	12
	Civic spirit: Cooperation	Wow, it's fun. (When it comes to orchestra) It's really enjoyable. Because we're united well.	12
	Leadership: Guiding and leading	They took me under their wing as a beginner and led me all the way to the performance.	12
Humanity/ compassion	Passion: Zeal	While practicing, I keep thinking I should practice about twenty times, but then I forget	9
Spirituality/ transcendence	Sense of humor: Playful	The person next to me is playing it louder. It drives me crazy.	8
	Hope: Optimism for the future	I hope to work harder in the second semester and create (music) together.	8
Content related to well-being elements		Representative transcript	Number of texts
Achievement producing results through effort		While keeping up with the rhythm and working hard (smiles) the sense of accomplishment is overflowing.	19
Relationship interactions with others		Since the other person is looking at me, Since the other person is looking at me	18
Positive emotion: Optimism, good mood		It's relieving stress	15
Meaning: Personal value		What I hoped for was to leave something in my heart after this performance	14
Immersion: Flow state		Because it's going so well. I'm getting carried away by the music	4

Ⅳ. 지역 오케스트라 음악 활동에서 나타난 긍정 요소

현장에서 수집한 텍스트 자료들의 분석 결과 긍정은 여덟 가지의 강점 개발 요소와 다섯 가지의 웰빙 요소로 나누어졌다.

1. 강점 개발

1) 호기심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품을 때 호기심이 생긴다고 한다. 호기심은 막연한 바람이나 예전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자료 1>

단원 1: **옛날부터 색소폰을 한번 배워볼라고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되었어요. <2022.7.20./성인/8시/연습실>

일단 호기심의 문턱을 넘어서면 재미를 맛보게 된다. 재미를 느끼면 학생이나 성인단원이나 음악을 하고 싶어 하게 된다.

<자료 2>

단원 2: **재미가 있으니까** 학원갔다가도 여기 오지. <2022.7.14./학생/8시/연습실>

<자료3>

단원 3: 정년 퇴임하고 나서 인생의 2막 중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니까 **재미있는 데 어렵다 싶어요.** <2022.7.14./성인/8시/연습실>

어떠한 학습의 이유를 가질 때 동기화(motivation)된다고 한다. 동기화의 수준은 원천에 대한 동기화가 얼마나 강렬한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가에 따라 다르다(Jeong, Lee, Cho, & Oh, 2018). 플룻을 하는 단원3은 악기 연습에 대한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연습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다. 음악활동의 재미를 느끼는 데에는 지휘자도 마찬가지이다.

<자료 4>

지휘자: 그런데 찍어 놓은 영상을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저도 아마추어지만 다른 분들이 뭐라 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애들이 연주하는 음악하고 나의 지휘가 너무 잘 맞다.**

연구자: 아.

지휘자: 이런 애기들을 때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2022.7.20./지휘자/7시/사무실>

지휘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지휘공부도 함께 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자적 조건이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가 생기자 다루고자 했던

악기를 할 수 있다는 호기심에 등록을 하였다. 호기심을 실천으로 옮기면 그것에 대한 능력이 길러지고 능력이 숙달될 때 더 많은 재미를 느끼게 된다. 이 능력은 강점으로 자리잡는다(Seligman, 2011).

2) 끈기

까다로운 구조를 가진 악기를 연습하는 과정은 흥미로운 일만은 아니다. 맞는 음을 찾아내고 멜로디를 리듬에 맞게 연주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다.

<자료 5>

단원 4: (하루에) **스무 번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려웠어요. <2022.7.20./성인/8시/복도>

악간의 재미를 경험한 후에는 더 많은 실력 향상을 꿈꾸게 된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습하는 끈기를 보이게 된다.

<자료 6>

단원 5: 두 세 시간 하면 너무 피곤하고 **두 시간만 연습하는 데 이게 조금씩 느는 느낌**.

연구자: 아. 그게.

단원 5: **어느 날 조금 느는 느낌**. <2022.7.20./성인/8시/연습실>

지속적인 연습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과정을 몸으로 학습하면서 “조금 느는 느낌”이 느껴진다. 이 느낌을 한번 느끼면 더 느끼기 위해 계속 연습을 하게 된다. 끈기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위해 굳은 의지를 발휘하도록 하는 힘이 바로 끈기이다(Seligman, 2011). 단원 5는 위와 같은 과정을 매일 반복한다.

<자료 7>

단원 6: (연주하기) 전날까지 ‘여름 음악 매들리’ 안 되어 가지고 악보 외우느라 제일 늦은 시간에 잤고요. **세상에서 제일 늦은 시간에 잤어요**. <2022.7.20./성인/8시/연습실>

악보를 외워서 연주를 하려고 하는 단원 6은 “제일 늦은 시간”에 잘 정도의 끈기를 보인다.

3) 용감성

바로 앞에 닥친 불안과 어려움을 알고서도 맞서려고 하는 데에서 용기는 만들어진다. 악기 연습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용기는 필요하다.

<자료 8>

단원 7: 지휘자 선생님, 너무 진짜 제가 존경합니다. (지휘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정말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 잘합니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데 있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 <2022.7.14./성인/
8시/연습실>

색소폰을 연주하는 단원 5는 음악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휘자의 도움을 받아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지속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자료 8>은 용기가 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라는 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학습으로 이동함을 보여준다. 용기의 덕목에는 맡은 일을 해내는 책임도 있다(Seligman, 2011, Seligman, 2020).

<자료 9>

단원 8: 저는 서울에서 이번 주에 **가족 다 내려오는데 저만 못갑니다.**
단원 9: 가면 안 되지. 일 년에 (연주가) 한 번인데. <2022.9.6./성인/7시/연습실>

단원 8은 공동의 음악적 목표인 연주회를 잘 해내기 위해 가족 모임을 포기하고 오케스트라 연습에 참석한다. 이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타인에게 드러난다.

<자료 10>

단원 10: 공연을 끝난 뒤에는 **어떤 곡을 주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에요.
<2022.7.14./성인/8시/연습실>

교수자에게 받은 용기는 다른 악곡, 다시 말해 다른 책임을 주어도 연주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변화한다.

4) 시민 정신³⁾

현대 사회에서 시민 정신은 틀지어진 공동체 내의 의무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성격에

3) 셀리그만은 공동체 혹은 조직의 성격에 따라 시민 정신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시민 정신은 팀워크이며, 이를 중심으로 코딩하였다.

서 벗어나 자기를 드러내는 자율성이 더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Lee, 2023a). 다양한 역할을 하는 단원들, 그리고 지휘자와 음악감독의 경계를 관통하여 관찰할 수 있는 시민 정신은 협동 즉, 팀워크이다.

<자료 11>

단원 11: 아이. 재미 있지예. (오케스트라 하면) 진짜 재미있어요.

단원 12: **우리가 단합이 잘 되어서.** <2022.7.14./성인, 학생/8시/연습실>

<자료 12>

연구자: 파트 연습 분위기는 어때요?

단원 13: **화기애애해요.** 웃기도 하면서 잘 하면 왜 이렇게 잘 해? 못하면 너 이거 다 틀렸어 이 자식아 하하. 이런 식으로. <2022.9.6./학생/8시/연습실>

음악활동의 형식으로 자기 및 공동체의 목소리를 외부로 드러내어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예술적 시민성이라 한다(Lee, 2023a). 생활주변 공간에서 악기 연주라는 예술적 형식을 사용하여 타인 앞에 자기를 나타내는 일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속성을 민주적으로 드러내는 적극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함께 음악을 만드는 작업인 합주와 파트 연습에는 단단한 단원들의 팀워크가 들어 있다. 그래서 더 “화기애애”하게 연습을 하고 있다. 동료와 함께하는 현상은 실수를 했을 때도 나타난다.

<자료 13>

연구자: 합주하다 박자를 놓치면 어떻게 찾으세요?

단원 14: 네.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서 가면 쉽죠 손으로 집어가면서 찾기도 하고**
<2022.7.14./성인/8시/연습실>

합주악보는 독주 악보와 달리 모두가 화음을 맞추는 부분이 있고 타인이 나오는 부분에 박자를 세며 기다리는 부분이 있다. 박자를 잘못 세고 나오게 되면 제 박자를 찾기 위해 동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합주활동에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자기 소리를 크기를 조절하는 강약의 학습, 지휘를 보며 속도감을 익히는 빠르기 학습, 끝마침을 감각적으로 맞추는 학습이 곳곳에 들어 있다(이현수, 2023a). 그래서 오케스트라 합주에는 거대한 음악적 팀워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실수는 발생한다. 그럴 때마다 박을 찾고 맞는 음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체는 바로 동료이다.

5) 열정

어떤 사람이든 가치를 둘 만한 목표가 생기면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된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고 그 소리로 멜로디를 연주하고 싶다는 가치를 목표로 삼을 때 열정이 생긴다.

<자료 14>

단원 15: (손 안의 작은 원통을 보여주며)통이죠. 연습을 하다가 내가 스무 번을 연습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콩 놓으면서 (세어가며) 하는 거야.**
<2022.5.28./성인/7시/연습실>

<자료 15>

단원 16: 요래 한번 옮기면 **열 번**, 이래 한 번 옮기면 **스무 번**. 그런데 요개 오면은 집에 서 **연습하며 ‘아 된다.’** 이러는데 **같이 하면 속도가 늦어 가지고 (통 안의 콩을 보여주며) 재밌죠?**

연구자: 이야. 한 번 할 때마다? 열정이 대단하시다. <2022.5.28./성인/7시/연습실>

좀 더 좋은 소리를 내길 연주하길 원하는 단원 16은 입술을 사용하여 소리를 내는 관악기의 불안정함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연습을 하고 있다. 원하는 소리가 날 때 “아 된다”를 느끼면 그 소리로 멜로디를 구현하고자 하는 강한 열의가 나타나고 “콩”을 부단히 옮겨 반복하여 연습하는 열정으로 나타난다.

6) 유머 감각

기분을 분석한 하이데거(Heidegger)에 따르면, 존재 양식으로서 기분은 이미 ‘기분 잡힌 이해’이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기분 잡혀 있음은 우리를 ‘거기에’로 데려온다고 했다. 기분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상태로 되는가”(Heidegger, 1926: 335)를 보여준다.

오케스트라의 합주의 분위기는 대부분 엄숙하다. 이런 분위기는 단원들을 긴장 혹은 위축시킨다. 그래서 엄숙한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하다. 행복마을 오케스트라는 두 가지의 분위기 전환 방식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교수자인 음악감독이 보여주는 유머이다.

<자료 16>

음악감독: 소리를 내다 보면 문제는 웃기는 게 있잖아요. 합주를 하잖아요. **우리는 합주를 하면 남의 소리는 안 듣고 내 소리만 무조건 크게 내요. 짜요.**

단원들: **하하.**

음악감독: **너희는 조용히 해라 내 소리 들어 봐 부응~.**

학생들: **하하.**

음악감독: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더 크게 한다. 우아 돌아 버린다.

단원들: **하하.** <2022.7.5./음악감독/8시/연습실>

교수자의 유머 감각은 연주 중 단원들이 연습에서 조절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부분인 강악을 묘사하는 형태로 일어난다. 이런 묘사는 부분적인 연주양상에서 음악 전체의 연주로 확대하여 묘사하기도 한다.

<자료 17>

(신세계 교향곡 합주하다가 중단하고)

음악감독: 우리는 제발 작게. 뭔가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굴곡이 없다. **작게 하라고 하면 팔라지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따~라라~ 해야 되는데 신세계를 뽕짝으로 만들어 놓는다.**

단원들: **하하.**

음악감독: **하하.** <2022.7.14./음악감독/8시/연습실>

분위기를 전환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학습자인 단원이 보여주는 유머이다. 아래는 연주 경험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자료 18>

단원 18: 그날 너무 설레어 가지고 잠도 안 오고. **음악이라는 게 마법같은 거죠. 진짜 막 마음이 치유되면서 피로함도 없어지고, 배고픔도 짝 사라지고 역시 악기 음색을 고루고루 맛을 봐야 돼요.**

단원들: **하하.** <2022.7.20./학생/8시/연습실>

학생인 단원 18은 음악을 ‘마법’으로, 무대 공연을 ‘맛’으로 묘사한다. 지휘자와 단원은 그들이 겪는 상황을 재미있게 묘사해 낸다. 엄숙한 합주 분위기는 단숨에 전환된다.

7) 희망

희망은 미래에 다가올 보장되지 않을 상황에 대한 긍정 정서의 외적 표현이다. 현재 또는 과거의 경험이 소중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때 희망은 현실화된다.

<자료 19>

음악감독: 제가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저도 연주를 하고 하지만,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잘 없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연주를 끝내서 어떤 거에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가 겨울에는 정기 연주회를 할 거니까, **무대를 한번 섰으니까 뭔가 좀 더 잘 해보자고, 열심히 해보자고, 모이자고 얼굴보고** <2022.7.14./음악감독/8시/연습실>

<자료 20>

플룻 강사: 옆에 앉아서 악기 붙어주고 옆에서 악기로 치고,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끝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눈물 참는다고 하하. **2학기 때는 더 열심히 해서 같이 (음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022.7.20./강사/7시/연습실>

연주회를 처음 경험해본 단원들은 격 있는 무대에 섰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플룻 강사는 열심히 하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관계한다.

<자료 20>

단원 19: 너무 즐겁고 감사했고 2학기 때도 열심히 할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과 2학기 때도 연말 연주회에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1.2./성인/8시/연습실>

연주회 경험을 통해 단원들은 “열심히”와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얻는다. 단원들의 의지와는 달리 최종 관리자인 센터장은 단원들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마을 교육공동체에서 음악관련 사업을 늘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여 불가능한 악기를 자력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자료 21>

센터장: (우리가) 열 여덟 개 시군이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어예. **여기도 다 밴드(오케스트라)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2022.7.20./센터장/8시/연습실>

<자료 22>

센터장: **비싼 관악기 정도는 우리 돈으로 사는 그런 거.** 다음에 저는 우리가 협동조합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아가 시장도 개척하고 돈도 벌고 요래 풀어가보면 **어떨까.** <2022.7.20./센터장/8시/연습실>

센터장은 행복마을학교 오케스트라 형태를 다른 도시로 확장시킴과 동시에 자본을 축적하고 악기들을 독자적으로 구매하며 오케스트라의 성격을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지원에 의해 제한적인 활동을 하는 오케스트라를 주체적인 형태로 변화해 보려는 의지이다. 희망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드러내주는 강점으로 작용한다 (Seligman, 2011).

8) 리더십

50명 가까운 단원들이 곡을 다듬고 그럴듯한 연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 오케스트라의 대외적 역할은 센터장이 하지만 음악적 리더 역할은 음악감독과 지휘자가 한다. 나름대로 준비한 작은 음악회를 해본 상황에서 단원들은 음악을 만드는 리더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료 23>

단원 20: 누구라도 받아준다 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공연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생 **초보를 경찰 캐리 하듯이 끌고 가져가지고 공연까지 가게 되었구요** <2022.7.20./성인/8시/연습실>

구성원의 대부분은 비전공자이며, 악기를 다루어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사람들을 연습시켜 연주 무대까지 설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리더이다. 리더의 역할은 단원들의 호기심과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올리고 근성을 자극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료 24>

단원 21: **저는 정말 가슴이 떨리고 뿌듯하고.....** (말을 잊지 못하고) 고맙습니데이.
<2022.9.20./성인/7시/연습실>

단원 21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아가며 리더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한다. 지역에서 거주하며 음악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던 일반인이 격식 있는 공연장에서 관객을 상대로 연주 무대에 서는 것은 정말로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단원들이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며 느낀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만들었다. 그러나 리더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자료 25>

음악감독: 아마 창단 연주회 할 때는 이것보다 열 배는 짜증을 낼 거야.

단원들: 하하.

음악감독: 내가 파트에서는 그렇게 짜증을 내지 않아요. **우리가 사십 명이든 오십 명이든 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위치 자체가.** 그래서 짜증을 듣고 했을 때 **그게 무대에서 해소가 되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구나. <2022.7.20./음악감독/8시/연습실>

리더에게는 단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 공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곡을 선정하여 구성원들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악 만들기는 음악감독이나 지휘자 개인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리더가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원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자료 26>

음악감독: 바이올린은 연주하다가 (악보) 몇 개 놓쳐요. 그럴 수가 있어요. 관악기들도 음을 못 붙면 몇 개 쉬었다가 나오면 되고, 색소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플루트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타악기는 좀 달라요. **타악기가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려.** 타악기는 파트마다 악기가 하나밖에 없어.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해요. 한 명이 이상하게 (연주) 하면 (단원)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역할이 막중하다니까. **우리는 다 타악기를 의지해. 타악기는 (멜로디파트) 이쪽 음악을 들어야 하고 우리는 다 타악기를 의지해. 타악기만 되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 <2022.7.14./음악감독/8시/연습실>

음악감독은 관악기 그리고 현악기 단원들에게 자신의 연주만큼 타악기의 리듬을 함께 들으라고 말하고 있다. 서로 음악을 듣는 과정은 철저한 음악적 상호작용이다. 음악감독은 오케스트라 전체가 좋은 연주를 해내기 위해서 탄탄한 상호의존적 관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2. 웰빙

1) 긍정 정서

긍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웰빙이론은 긍정 정서와 성취, 몰입, 관계, 그리고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Seligman, 2011). 기쁨이나 자신감 그리고 낙관성은 긍정 정서를 만들어 낸다. 긍정 정서는 유전자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환경에 의해 발현될 수 있다.

<자료 27>

(타악기 파트 연습을 보고 있다가)

연구자: 악기 치시고 두드리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단원 22: **아~ 스트레스 풀리지요** <2022.9.30./성인/8시/연습실>

긍정 정서를 생활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누리되, 되도록 시간 간격을 넓혀 틈틈이 경험하는 것이다(Seligman, 2011). 일주일에 두 번, 틈나는 시간을 쪼개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음악활동을 즐기는 것은 긍정 정서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 실력이 부족한 단원은 자신의 음악적 능력이 향상되는 자신감을 경험한다.

<자료 28>

단원 23: 합주하면서 여러 악기들과 **듣는 귀도 열리고요** <2022.7.20./학생/8시/연습실>

음악적 능력이 향상되면 자기가 하는 연주에 자신감이 붙고 합주 상황에서 자신감 있게 연주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 정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음악적 자신감을 긍정 정서로 가지게 되면 외부의 관계로 연결하기도 한다.

<자료 29>

단원 24: 우리 동네에서 자랑을 하고 다음 연주할 때는 **친구들한테 팝플렛을 다 돌리고 모두 초청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2.9.30./성인/8시/연습실>

긍정 정서는 능력을 향상해낸 자신감으로 멈추지 않고 자기 음악을 외부로 알려 존재를 드러내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긍정 정서를 가지면 건전한 사고를 하게 된다. 이는 신체 질환을 막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이런 정신적 사고 작용과 더불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실천하면 웰빙 효과가 생긴다(Seligman, 2011).

<자료 30>

단원 25: 일체유심조라고 내 마음에 행복이 다 있어요. 내 건강 관리도 그런 말이 있는데 **최후의 승리는 건강관리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면 참 보기 싫은 노인이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악기 연습하고, 헬스하고 책 읽고 내 몸에 때가 까지 않게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7.20./성인/8시/연습실>

음악활동의 사회적 의미 중 하나는 개인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려는 의지를 발현하는 것이다(Lee, 2023b). 이때 음악활동은 치료, 건강, 웰빙으로 기능한다.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의지는 음악활동 자체에서 발생한다.

2) 성취

성취는 노력하여 목적인 것을 얻는 것이다. 성취와 만족은 다르다. 그러나 만족에 이르기 위해 성취는 전제 조건이 된다. 열심히 연습한 기량을 통하여 음악을 만들어낼 때 단원들은 성취를 느낀다.

<자료 31>

(타악기 단원들 합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연구자: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단원 26: 박자가 잘 맞게 누누이 열심히 하면서. (웃는다.)

단원 27: **성취감이 뽐뽐.**

연구자: 아. **성취감.** <2022.7.14./성인/8시/연습실>

단원 26과 27은 합주에서 동료 간에 리듬과 박자가 일치하는 짧은 순간에 성취감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취 속에는 자신이 오케스트라 구성원의 역할을 해냈다는 뿌듯함이 들어 있다.

<자료 32>

단원 28: 제가 5월 달에 들어와서 실력도 별로 잘 하지도 않고 평소에 관악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데다가 물어본 적도 없어서 고생 좀 했어요. **막상하다보니 까 나 자신이 대견한 같고 뿌듯해요.** <2022.7.20./성인/7시/연습실>

<자료 33>

단원 29: 일단 저번에 연주를 준비하다 취소되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 아쉬움이 무대를 마치고 났을 때 뿌듯함으로 밀려왔구요. 다같이 연주를 해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2022.9.20./성인/7시/연습실>

뿌듯함은 기쁘거나 좋아서 벅찬 마음이다. 성취감의 일부로 나타나는 뿌듯함은 어렵고 힘든 연습 과정을 이겨내고 ‘우리가 공연을 해냈다’라는 정서를 만들어 낸다. 한편 오케스트라의 구성원은 자신을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자료 34>

단원 31: 제가 남 앞에 가서 **나 바이올린 하는 여자야! 멋진 여자야!** <2022.9.20./성인 /7시/연습실>

단원 31은 자신을 “바이올린 하는 여자”, 즉 음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말한다. 이는 타인에게 자기를 ‘음악하는 존재’로 인식해주길 원하는 것이다. ‘음악하는 존재’는 자기를 음악적 성취를 이루어 뿌듯하게 느끼게 변화시켜 빛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단원들의 성취 과정을 보는 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자료 35>

센터장: 저는 오케스트라 어린애가 (와서) **하는 걸 보면 행복하고 대견해요.** <2022.9. 20./센터장/7시/연습실>

센터장은 타인의 성취를 바라보는 형식으로 성취감을 느낀다. 성취의 과정에는 뿌듯함, 안도감, 자신감, 자부심, 대견함이 있는데 코딩 과정에서 이 개념들이 모두 발견되었다. 주목할 점은 단원들이 얻게 된 성취는 그 자체가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성취는 만족, 뿌듯함, 자부심과 같은 정서로 확산하도록 돕는다. 성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들을 온전히 흡수하면 낙관적인 사람이 된다.

3) 관계

오케스트라는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다. 멜로디, 화음, 리듬을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면서 만들어 내는 음악적 협동의 총체적 과정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 맺기 하는 존재이며, 음악적 정체성도 관계에서 시작되고 형성된다(Lee, 2021; Lee, 2023a). 오케스트라 합주에서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관계는 사람과 상황, 사태에 따라 부단히 다른 형식으로 형성되기를 반복하며 인간 존재를 재규정하기 때문이다. 행복마을 오케스트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계가 나타난다. 하나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단원들이 상호작용하며 음악을 만들어 가는 내부적 관계이고 또 하나는 오케스트라가 처음 보는 외부 사람들과 맺는 외부적 관계이다. 아래에서는 내부적 관계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보여준다.

(1) 내부적 관계

합주를 할 때 단원들은 실수를 하기도 한다. 이때 단원들이 내부적으로 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래는 연주하는 악보의 마디를 놓쳤을 때 모습이다.

<자료 36>

연구자: 혹시 연주하다 놓치면 어떻게 하세요?

단원 32: 일단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예.**

단원 33: 내가 이리 (저리) 하다가 보면 아는 데가 나와요. **아는 음악이 나오는 데가 있어.** 그때부터 다시 세다가 (연주를) 들어가는 거지예.

단원 34: **순간순간 지휘를 보고 따라가죠. 잘 봐야 돼요.** 그거보고 있다 보면 맞을 때도 있고 안 되면 뭐 왕창 틀리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고 하하. <2022.9.20./학생/8시/사무실>

사람은 타인의 음악에 ‘외존(ex-position)’⁴⁾하고 동행하면서 음악적으로 관계맺기한다 (Lee, 2021). 단원이 실수를 하면 옆에 앉아 있는 단원은 함께 연주하기 위해 마디와 박자를 알려준다. <자료 36>은 단원들이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 외존하는 형식을 보여준다. 함께하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자료 37>

음악감독: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 (나이) 이니까. 칠십 이리시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의자에 발도 안 닿는 놈들부터 해가지고.** <2022.7.20./음악감독/8시/사무실>

합주를 해내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모든 단원이 음악을 듣고 맞추어가는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음악적 소통은 지휘자와 단원 간에도 나타난다.

<자료 38>

지휘자: 학생오케스트라 관악부에서 애들이랑 할 때는 사실 곡을 다 외워서 하거든요. 항상 아이들⁵⁾한테 저를 **쳐다보라고** 하거든요.

연구자: 네.

지휘자: 너네는 지금 악보를 안 보고 선생님 **얼굴 보고 하니까** 선생님만 따라오면 너네는 할 수 있다. 말하는데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애한테 사인을 주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으로 교감하는 이 야기니까.** 근데 그게 내가 누구를 보든 혼을 보든 트럼펫을 보든 **사인을 주고 싶은 애들하고 바로바로.** 애들은 나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 손보고 다 따라 오는 그림 느낌.**

연구자: 네.

4) ‘외존’은 ‘자기’가 바깥으로 열려 있는 타인이라는 관계 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타인을 향한 의존이다.

5) 전사 문맥상 연구 참여자가 말한 “아이들”은 모든 단원들을 지칭하고 있다.

지휘자: 그런데 찍어 놓은 영상을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저도 **아마추어지만** 다른 분들이 뭐라 해야 되지 애들이 연주하는 음악하고 **나의 지휘가 너무 잘 맞다.**
<2022.9.20./지휘자/8시/사무실>

지휘자와 단원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음악을 만들기 위한 소통을 한다. 무대에서는 이러한 소통이 “쳐다보라고”, “얼굴 보고 하니까”, “눈으로 교감하는 이야기”, “내 손보고 다 따라오는 그림 느낌”의 비언어적 소통으로 전환된다. 연습과 공연을 하면서 단원들과 지휘자는 매우 섬세한 음악적 감각을 언어적 비언어적 방식으로 소통하며 상호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단한 상호작용으로 하나의 음악을 완성해가면서 결과물인 음악은 외부의 타인에게 전달된다.

(2) 외부적 관계

단원들과 지휘자는 합주의 과정을 연주회의 공연으로 만들어 외부의 관객에게 보여준다. 초등학교 단원부터 성인 단원 그리고 머리가 하얀 노인 단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본 관객들은 일반적인 축하를 넘어선 반응이 나타난다.

<자료 39>

센터장: 단원도 아닌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 울었다 하는 거라.**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었어예.** 그냥 도서관에 책보러 왔다가 연주회 보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2022.7.14./센터장/8시/사무실>

내부자들이 들려주는 연주회는 관객들에게 전달되면서 언어보다도 더 깊은 소통 형식을 만들어낸다. “울었다”의 ‘눈물’은 단원들과 지휘자가 만들어 낸 외부적 관계의 결과물이다.

<자료 40>

센터장: 저희 연주보고 새로운 **단원 가입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구요.** <2022.7.14./센터장/8시/사무실>

흠(Hume)에 따르면, 공감(sympathy)은 상대방의 감정이 자신에게 전이될 때 상대방의 느낌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서 상대방이 느꼈을 느낌을 추론하고 유사한 느낌을 받으면서 형성된다(Byun, 2016). 공감은 타자를 전제하고 타자를 통해 확산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외부자인 관객을 단원들이 연습과정에서 느꼈던 느낌의 세계로 불러들인다. 관객은 유사한 느낌을 받으면서 감동을 얻는다. 공감적 소통을 일으키는

것이다. 외부로 향하는 소통은 관객에게 자신도 이런 감동을 직접 느껴보고자 하는 새로운 관계, 즉 ‘음악 실천’으로 이끈다.

4) 의미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사는 동안 진정으로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Seligman, 2011). 의미는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이다. 가치는 삶을 사는 목적이자 이유이다. 사람마다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다. 다양한 삶의 가치 중에서도 음악감독은 연주활동에서 얻는 가치에 의미를 두길 바란다.

<자료 41>

음악감독: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요번 연주 끝나고 나서는 **가슴에 뭉가 남길 바랍니다**. <2022.7.20./음악감독/8시/사무실>

의미는 자신이 어떤 것을 체험한 후 갖게 된 정련된 느낌이나 감정이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의미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음악감독은 연주를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찾기를 바라고 있다. 음악 행위인 연주를 실천하면서 “가슴에 뭉가”남는 의미를 발견하면 나름의 가치를 갖게 되고 음악 행위는 단원 각자 삶의 진정성이 된다. 음악 실천으로 만들어진 의미는 삶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주는 방식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자료 42>

지휘자: 사실 제가 오케스트라를 좋아하는 거는 **재미도 재미지만, 저는 사실 재미보다는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저희 토요일 전에 금요일 합주할 때 팀파니 치시는 민정님이⁶⁾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강선생님하고 처음 지휘하면서 합주를 하면서 눈을 맞추고 어벤저스(첫곡)을 마쳤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첫 합주를 마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라 해야 되지…… **내가 한 일에 있어서 내 스스로 감동을 받을 때 저는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소름이 돋고 그래서 우리 행복마을 오케하면서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나에게 감동 받는 순간이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7.20./지휘자/8시/연습실>

운지를 하면서 소리를 내고, 악기를 익히며 몸의 학습을 하게 된다. 리듬과 화음을

6) 가명을 사용했다.

맞추고 음악적 협동을 하며 음악을 완성한다. 무대에서 관객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연주 경험을 하면서 또 다른 성취와 감동을 얻는다. “내가 한 일에 있어서 내 스스로 감동을 받을 때”의 감동에는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감정적 의미들이 함께 들어 있다. “눈물이 날” 정도의 감동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고 “감동 받는 순간이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태도를 만든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가치로 연결된다. 수많은 의미 중에는 자기 연주 실력의 성찰도 들어 있다.

<자료 43>

단원 35: 연습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2022.7.20./학생/8시/사무실>

<자료 44>

단원 36: 단원 36입니다. 저는 창단할 때부터 있어가지고 조금 자만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연습을 너무 안 했구나.** 저는 어린 애들한테도 배우는 게 있고 어르신들한테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 저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2022.7.14./성인/8시/사무실>

구성원 개인에게 오케스트라 활동은 악기를 체험해보는 단순한 경험이었다. 그런데 무대연주를 통해 깨달은 부족한 악기 실력은 좀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음악을 표현하고 싶다는 자기 반성으로 변화한다.

자료<43>, <44>는 하나의 체험을 좀 더 “배워야 되겠다”는 성찰로 변화시키고 악기/음악을 더 탐구하려는 태도로 이동하게 만든다. 이렇게 음악 실천에 의미를 두고 음악함의 가치를 체험하면서 단원들과 지휘자는 이미 ‘음악적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자료 45>

센터장: 우리가 뭐 줄리어드 음대 나오고 음악 전공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이 진심으로 들어가서 아까 어린 친구가 그런 말을 했었지예. **치유라는 말을.**
그래 그분들이 치유를 받았나 봐예. <2022.7.14./센터장/8시/사무실>

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은 소리를 음율화하여 연주라는 이름으로 분출한다. 관객은 연주를 다양한 의미로 개인화한다. 단원들은 “줄리어드 음대” 나온 연주자들처럼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지역에서 동네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음악적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고 음악활동으로 타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이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5) 몰입

어떤 일에 긍정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는 몰입이 필요하다. 자발적으로 목적인 바를 가지고 깊이 집중하여 자기 또는 주변의 시간 흐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몰입된 상태이다(Csikszentmihalyi, 1999).

<자료 46>

단원 37: 긴장됐는데 틀릴까 봐 긴장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하니까 음에 도취되어 가지고 딱~** <2022.10.4./학생/8시/연습실>

몰입은 내재적 동기에서 시작된다. 몰입이 시작되면 한계를 초월하여 지각되는 경험인 절정경험(Peak Experience)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자아의 감각, 의도성이 분명한 목적을 수행하게 되는 결과인 절정의 수행(Peak Performance)를 경험한다(Shin, 2023). 단원 37은 “너무 잘 하니까” 주관적 판단을 한 다음 “음에 도취되어” 연주하는 몰입에 빠진다. 아래는 구체적으로 몰입하는 또 다른 현상을 보여준다.

<자료 47>

강사: 이제 내려갑니다. 파부터.

단원 38, 39, 40: (악기 분다)

단원 38: **(눈 감고 악기를 분다) 파미레도~**

강사: 하나 둘 둘 둘. (다른 학생들 지켜본다)

단원 38: **선생님 눈 감고 하니까 더 잘 돼요.**

강사: 이제 한 박씩. 하나 둘. 라 시플렛 도레미파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단원 38, 39, 40: (상행 시작)

강사: (손으로 박수치다가)

단원 38: **야. 눈 감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부는지 모르겠네. 파까지 하기로 했는데 어디까지 내려가.

단원 38: **너무 집중해서.** 하하.

강사: 하하. 자. 이거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내림 마장조까지. 어려운 것 같은데 까먹을 것 같은데. <2022.10.4./강사, 학생/8시/연습실>

플루트를 가르치는 강사는 “파”부터 하행하는 연습을 시킨다. 단원 38은 “눈 감고”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 다음 눈을 감고 악기를 부는 것이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만의 몰입 방법을 “눈 감고”로 찾아 악기 소리 내기에 활용하여 잘되는 결과에 도달한다.

V. 논의 및 결론

앞의 장에서는 오케스트라활동이 호기심, 끈기, 용감성, 시민 정신, 리더십, 희망, 열정, 유머 감각의 요소들로 구성된 강점 개발로, 긍정 정서, 성취, 관계, 의미, 몰입의 요소들이 웰빙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오케스트라 음악활동이 긍정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음악적으로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는 단원들이 교수자에게 할 수 있다는 심리적 동기를 부여받으며 끈기 있게 연습과정을 감내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은 끈기, 책임, 열정으로 나타난다. <자료 5>의 “스무 번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자료 7>의 “악보 외우느라 제일 늦은 시간에 잤고”는 동기를 부여받은 단원들이 자기 파트의 연주를 해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일부의 단원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무대에서 공연까지 전 과정을 겪은 단원들은 강한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게 된다.

긍정을 경험하면 우리의 지적 ·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구축하여 위기에 처할 때 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활용하게 한다(Seligman, 2011). 음악하는 것에 대한 일부분의 부정적 인식은 <자료 10>의 “어떤 곡을 주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나 <자료 21>의 “여기도 다 밴드(오케스트라)가 생기면 좋겠습니 다.”로 변화된다. 이전에 존재했던 두려움이나 부정적 인성이 긍정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오케스트라활동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은 교수자와 학습자로 나뉜다.⁷⁾ 강사인 지휘자, 음악감독은 구성원과 함께 좋은 연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이 노력은 음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협동을 만든다. <자료 26>의 “우리는 다 타악기를 의지해.”와 <자료 13>의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서 가면 쉽죠.”은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음악하기로 타인과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인간은 생활 주변에서 공동체 문화 속에서 유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공동체 음악문화에 관해서는 교육과정에서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음악활동은 인간 삶의 일부이다. 생활 속에서 협력적 음악 경험은 자존감 · 책임감 · 균형감과 같은 인성을 함양한다. 또한 지역 · 세대 · 계층 간 대화의 장을 만들어 공동체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성장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p. 6). 생활 주변의 음악활동은 인간을 음악적 · 정서적 · 사회적으로 성장시킨다. 음악활동을 외부로 발산시키면서 타인과 연대하며 공동체 음악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긍정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생활 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인 학생들과 성인들이

7) 해당 오케스트라도 행복마을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 교수자를 사용하였다.

함께 음악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새로운 가치에 도전하는 과정 속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긍정은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자신이 선택한 일을 의미화시킨다. 신성한 가치의 새로운 원천을 찾도록 격려한다. 제한적인 세상의 한계에 직면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성한 의미를 찾고 자기에게 통합하는 근원적인 힘을 준다 (Snyder & Lopez, 2009).

주목할 점은 오케스트라에서 나타나는 긍정은 다양한 사람들과 대면을 통해 음악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수많은 접촉의 단면들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각 단면들은 “우리가 단합이 잘 되어서” 악보의 선율에 대하여 해석하며 동료와 이야기 나누는 장면에, “음에 도취”는 연습 장면에, “눈으로 교감하는” 무대 위 공연의 순간에 다양체의 모습으로 들어 있다. 구성원들에게 이 장면은 ‘자신만의 순간’으로 기억된다. 오케스트라활동을 하는 학생, 성인, 노인, 남자, 여자들은 각자 음악을 통해 긍정을 드러내는 ‘자신만의 순간’을 갖게 된다. ‘자신만의 순간’은 음악을 표현하면서 타인과 대면하면서 다양한 양태로 드러나는 ‘긍정의 순간’이다. 긍정함은 어떤 일을 겪으며 태도, 시선, 기존의 관점의 전환을 이루게 되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며 자신만의 느낌을 상황에 맞게 판단하거나 대처하게 해준다 (Jeon, 2023). ‘긍정의 순간’은 타인과 연결하는 하나의 음악적 접촉 지점이 되는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 Guattari)의 얼굴화와 탈영토화는⁸⁾ 단원들 각각의 다양체적인 모습을 잘 설명해준다. 개인이 가진 수많은 이미지들, 즉 긍정의 순간들은 얼굴이 되어 서로 부딪친다. 얼굴은 빈도나 확률의 지대들을 규정하고, 미리 적합하지 않은 표현들과 연결접속들을 적합한 이미지들의 작용으로 중화하는 장을 열어준다(Deleuze & Guattari, 2021). 일상이라는 생활세계에 배치되었던 구성원들은 오케스트라라는 음악활동의 장에서 만나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그들 자신의 얼굴들을 내어 보이며 하나의 장을 이룬다. 구성원들은 경계를 풀고 삶의 일부를 음악과 동화시킨다. 어떤 얼굴은 “듣는 귀도 열리고”, “나 자신이 대견한 것 같고 뿌듯”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서” 자기 음악의 위치를 알게 되고, 어떤 얼굴은 음악적 성장이 “성취감”으로 각각의 자신을 느끼고 드러낸다. 구성원들은 이렇게 자기의 느낌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긍정의 단면들을 열고 교류한다.

얼굴은 그들만의 교류에서 정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간다. 관객에 자신의 연주를 표현하기 위해 “외부 모두 초청하려고”, “책보러 왔다가 연주회 보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나와 타인의 “치유”로 표현된 연표들은 각각의 얼굴들이 연습 공간 혹은 공연장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접속하는 형태를 보인다.

구성원들은 기존 일상의 틀에 배치되어 있다가 음악활동을 통해 다른 사물, 사람, 관계

8) 들뢰즈의 관점을 빌어 연구자가 본 얼굴성은 지역 주민이 음악을 표현하면서 느끼며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방식을 일컫는다.

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기존 삶의 세계를 넘어 새로운 영토를 향해 움직이는 탈영토화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 호기심, 끈기와 같은 요소들은 긍정 정서가 된다. 음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탈영토화의 힘은 삶이라는 ‘배치’ 상태에서 ‘음악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음’으로, 음악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변화되는 것, 즉 긍정 정서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IV장 전체를 요약하면 생활세계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은 긍정적 정서를 느끼며 행복을 얻는 과정으로 말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은 자신의 대표 감정을 잘 발휘하여 참되고 풍요한 만족을 얻는데 열중하는 것이다. 자기 삶에 음악적 의미를 두면 행복한 삶에 다가갈 수 있다. 음악활동이 강점이 되면 행복한 삶으로 작용 가능하다. 행복한 삶은 자신의 대표 강점을 자신의 존재 이외의 무언가에 이바지하는데 활용하는 것이다(Seligman, 2011).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생활주변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몰입을 느끼며,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느낄 때 행복을 체험할 수 있다(Choi & Lee, 2018). 사소한 활동이라도 즐거움과 만족, 그리고 자기 의미를 생성할 수 있을 때 행복 추구의 요건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오케스트라 활동은 음악예술의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는 여지를 더한다. 긍정 정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다름 아닌 자기 행복의 추구이다. 다시 말해, 지역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잠재된 강점을 발견하고, 웰빙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공유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행복과 거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 음악활동으로 삶의 가치를 긍정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장면을 드러내려는 시도로 계획되었다.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활 속 음악 경험이나 공동체적 음악 문화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을 생활 속에서 포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활세계에서 음악함의 가치를 살피고 드러낼 필요가 있다.

긍정이론의 관점에서 본 지역 오케스트라 활동은 음악함으로 ‘삶을 긍정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삶의 긍정은 지역에 터하여 살고 있는 개인이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오케스트라의 형식으로 자기화하며 살아내는 것이다.

지역 오케스트라 음악활동은 강점 요소의 일부인 호기심과 끈기, 융감성과 시민 정신, 열정과 유머 감각, 희망과 리더십이 나타났다. 웰빙에서는 다섯 가지 요소인 긍정 정서, 성취, 관계, 의미, 몰입에서 모두 나타났다.

인간은 생활 주변의 장에 펼쳐져 있는 음악활동을 하면서 각각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삶과 연결짓는다. 이런 음악활동이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음악활동에서 긍정은 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행위에서 더 깊게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학령인구 저하와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적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케스트라 음악활동은 음악을 매개로 인간을 이해하고 긍정을 만드는 매개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음악활동으로 긍정을 탐구하려는 시도는 다른 음악교육의 현장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Byun, Y. J. (2016). Smith's sympathy and moral sentiments. *Journal of Ethics*, 111(1), 83-107.
- Choi, G. E., & Lee, K. H. (2018). Young children's lived experiences of happines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3), 165-190.
- Choi, M. S. (2022).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collaborative music composition activities using digital media and on-offline blended environm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3), 207-241.
- Chu, B. W. (2019). Analysis of success factors for positive education.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64, 61-84.
- Chu, B. W., Choe, Y. J., & Lee, E. M. (2020). Civic education based on the basic theories of positive psychology.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66, 1-26.
- Chung, D., Park, K., & Seo, J. (201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dership performance.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6(2), 401-428.
- Csikszentmihalyi, M. (1999). *Finding flow*. Trans. Song, Y. S. Seoul: Haenaem.
- Deleuze, G., & Guattari, F. (2021).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Trans. Kim, J. I. Seoul: Saemulgyeol.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22).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reatment for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over the past five years (2017-2021). Retrieved January 2, 2023, from <http://www.hira.or.kr>
- Heidegger, M. (1998). *Sein und Zeit*. Trans. Lee, K. S. Seoul: Kachibooks.
- Jeong, S. L., Lee, B. I., Cho, H. J., & Oh, D. Y. (2018). *Learning theory: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Seoul: Hakjisa.
- Jo, Y. H. (2016).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examples*. Seoul: Kyoyookgwahaksa.
- Jeon, H. W. (2022). Positive education: One possibility for education through the lens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Anthropology of Education*, 25(2), 1-27.

- Kang, Y., & Chie, H. W. (2016). Reconstructing the social value of arts through community orchestras. *The Kore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22, 187-225.
- Lee, H. S. (2021). Formation and change of identity of music teacher from a life-history approach.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3), 133-160.
- _____ (2023a). Artistic citizenship in the music activity of the local orchestra: Focused on happy village orchestra.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3(2), 615-634.
- _____ (2023b). A Study on the plans of music education through Martin Seligman's positive psycholog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3(8), 209-228.
- Lee, Y. S. (2018). A study of happiness and related factors among Korean peopl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65, 20-31.
- Ministry of Education (2022). *2022 revised music subject curriculum* [Annex 12]. Sejong: Author.
-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22). 「Happiness survey of Koreans」 Key findings. National Future Strategy. *Insight*, 38.
- PISA (2019). *What school life means for students' live* (Vol. 3). OECD Paris: Publishing.
- Song, M. H., & Kim, N. H. (2021). A Phenomenological study of career transitions of music majors: Focusing on instrumental majors working in non-music field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4), 093-122.
- Seligman, M.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421.
- _____ (2010). *Learned optimism*. Trans. Choi, H. Y. Paju: Book21.
- _____ (2011). *Positive psychology* Trans. Kim, I. J., & Woo, M. S. Anyang: Mulpure.
- _____ (2020).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Trnas. Woo, M. S., & Yoon, S. W. Anyang: Mulpure.
- Shin, G. H. (2023). Music class immersed in virtual reality. In *Presentation materials for the Spring Seminar of the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 Snyder, C. R., & Lopez, J. S. (2008).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Trans. Lee, H. K. Seoul: Hakjisa.
- Woo, M. S. (2012). *The happiness of positive psychology*. Anyang: Mulpure.
- Yoon, M. J. (2022).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belief about elementary music instructional goal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4), 143-159.